

특집

국내 양돈계열화 사업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



▲ 덕진농장 비육사 앞. 우측부터 (주)선진 염동민 양돈PM, 덕진농장 조상덕 대표, 이보구 논산 B.U. 1지역 회원담당부장, 강병모 논산 B.U. SJFarm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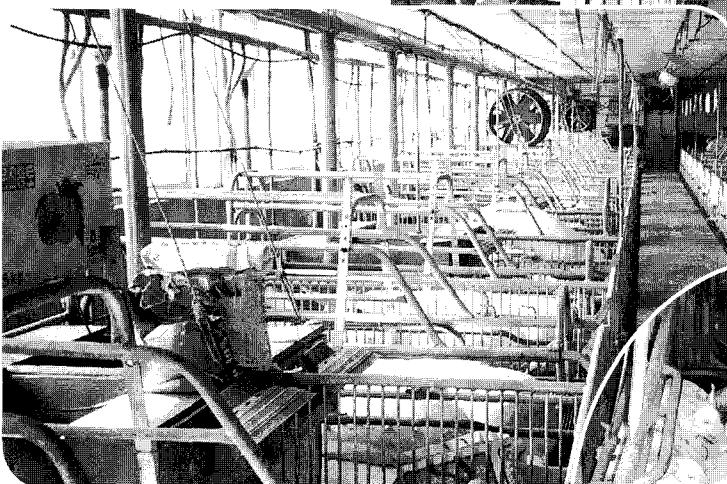
취재 : 정 재 은

덕진농장(조상덕 대표)은 일관경영 형태를 유지하며 (주)선진 SJFarm과의 상호파트너 관계로 (주)선진 SJFarm시스템 J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시설과 자금을 운영하며 선진의 우수한 종돈 및 정액을 채택하고 표준화된 사양 프로그램 적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간다. 또한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의 규격돈을 생산하여 크린포크 출하로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일관경영 형태를 유지하며 (주)선진 SJFarm과의 상호파트너 관계로 (주)선진 SJFarm시스템 J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 논산에 위치해 있는 덕진농장(대표 조상덕)을 방문하였다. 독립적으로 시설과 자금을 운영하며 선진의 우수한 종돈 및 정액을 채



택하고 표준화된 사양 프로그램 적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간다. 또한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의 규격돈을 생산하여 크린포크 출하로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덕진농장의 연혁과 (주)선진과의 만남

덕진농장은 성공적으로 2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농장이다. 현재 조상덕



▲ 임신사, 수세와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돈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

선진 SJFarm 시스템의 J그룹 회원농가로 참여한 이 후 모돈 300두 규모로 늘려

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모돈 320두를 사육하고 있다.

2003년 10월

현재 덕진농장은 일관경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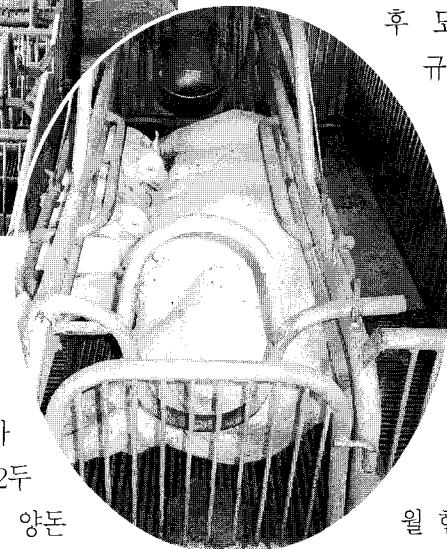
로 사육두수가 3,200두(모돈 320두)이며,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의 연간 출하

두수가 6,000두 이상이었다. 덕진농장은 조상덕 사장과 직원 3명이 운영해 나가고 있다.

●분만사.

대표(30세)의 아버지 조우영씨(63세)가 35년전 모돈 2두를 사육하면서 양돈업을 시작하였다. 1,000두 이상을 사육하면서 전업규모화가 이루어진 것은 15년전쯤인 1988년경이다.

조상덕씨는 1995년부터 덕진농장의 대표로 모돈 180두를 사육하였다. 1998년 (주)선





▲ 초기이유자돈사



▲ 자돈사

덕진농장은 SJFarm 시스템의 J그룹 회원농가로 참여하면서 우수 종돈개량과 계통조성, 고효율의 사료·영양관리, 표준화된 사양관리, 철저한 방역관리, 시설·분뇨 등 환경 관리,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규모를 늘려 운영하게 되었다.

덕진농장의 현황

■ 농장운영

덕진농장은 2site로 운영되

있으며, 초기이유자돈사 1동, 자돈사 1동이 있다. 돈분처리는 스크레파로 하고 있으며, 분은 퇴비화하고, 뇨는 활성 오니 처리를 하여 정화시킨 것을 방류하고 있다.

전 직원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농장 일을 돌보고 있으며, 수세와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돈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

■ 높은 생산성

덕진농장은 (주)선진

고 있다. 60~70일령(25~30kg)에 3km 정도 떨어진 비육사로 옮겨져 사육하게 된다. 돈사 구성은 비육사·육성사는 총 6동이 있으며, 2주 단위로 all-in/all-out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분만사 3동, 대기사 1동, 종부사 1동이

SJFarm시스템 J그룹 참여농가로 사료, 종돈 및 정액, 사양관리가 통일되어 있다. 선진의 우수한 고능력 종돈과 정액을 구입하고 있으며, 선진의 효율적인 배합사료를 이용하여 사육하고 있다. 또한 암수 분리 사육을 실시하고 있다.

덕진농장은 선진 양돈 전문 기술 인력에 의해 표준화된 사양관리, 철저한 방역관리, 시설·분뇨 등 환경 관리,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 까지 덕진농장의 평균 생산성적을 살펴보면 평균 출하체중은 105.5kg이며, 총사료요구율은 2.80이다.

평균생존자수는 10두, 평균이유두수는 9.7두이며, 모든 회전율은 2.4이다. PSY(이유기준)는 21.3두이다.

출하는 거세돈을 선진 크린 포크에 등급제로 납품하고 있다.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A등급 출현율은 45.3%, B등급은 35.8%로 A·B 출현율이 81%가 넘는다. 지급률은 평균 71%에 이르고 있다.

또한 덕진농장의 경우, 크린포크의 근간지방, 마블링, 육색, 탄력과 관련된 육질에서도 합격판정을 받고 있다.



(주)선진 SJFarm시스템 J그룹 참여농장으로 서의 장점

■ 체계적인 농장 운영 가능

덕진농장은 (주)선진 SJFarm시스템 J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종돈-사료-번식-비육-육가공에 이르는 생산체인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구매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편리하며,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장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우수한 종돈과 정액으로 통일되어 있어 질병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선진의 효율적인 양돈 배합사료 제공과 프로그램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전문가에 의한 각종 관리

선진 양돈 전문기술인력의 정기방문을 통해 양돈기술 이전 및 사양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어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성이 검증된 약품들을 현장처방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시적인 농가 방문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정돈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시설·분뇨 전문가에 의한 환경 관리를 통해 규모확대와 시설투자에 관한 조언을 얻고 있다.

SIVA 전산기록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분기별로 기록 분석 및 경영관리가 이루어져 성적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밖에도 화재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덕진농장의 경우 양돈전문가에 의한 전체적인 컨트롤과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 안정적인 출하 가능

덕진농장의 경우 (주)선진 SJFarm시스템 J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종돈 및 정액을 공급받고 사양, 방역, 환경, 정보 등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위생적인 고품질 크린포크를 생산하고 있다. 보통 지급률이 68%인 것을 감안할 때 크린포크로 출하하면서 71% 가까이 지급률을 받고 있어 수익이 높은 편이다.

또한 거세돈을 선진 크린포크에 등급제로 납품하고 있거나 때문에 장려금 지급을 받고 있으며, A등과 B등급 출현률



▲ 비육사·육성사. 덕진농장은 2site로 운영되고 있다. 60~70일령(25~30kg)에 3km 정도 떨어진 비육사로 옮겨져 사육하게 된다.



● 돈분처리는 스크레파로 하고 있으며, 분은 퇴비화하고, 높는 활성오니 처리를 하여 정화시킨 것을 방류하고 있다.

에 따른 장려금도 지급 받고 있다. 덕진농장은 근간지방, 마블링, 육색, 탄력과 관련된 육질 부분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맛이 좋고 안전한 돈육을 공급하는데 손색이 없다.

우수한 종돈 및 정액을 구매하여 통일된 사양프로그램 적용이 실천되고 있어 안전한

고품질 크린포크 브랜드 돈육 제품으로 안정적인 출하가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의 목표 및 개선점

덕진농장은 (주)선진 SJ-Farm 시스템 J그룹의 참여농가로 선발된 종돈과 정액, 우

수한 양돈 전문 사료를 공급 받고 있으며, 양돈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높은 생산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생적이고 고품질 크린포크 브랜드로 출하하여 수익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조상덕 대표는 말한다.

“현재 돈사가 부족하여 105kg에 빨리 출하하고 있지만, 돈사를 더 늘려 110~112kg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투자를 하여 모돈 500~600두 규모의 농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 양돈전문가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하여 농장에 더욱 적합한 사료급여와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나가고, 수세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질병을 예방해 나감으로써 성적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규모확대와 경영상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맛이 뛰어난 고품질 크린포크 생산에 계속 일조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양돈**

